



KIA 소사가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소사, 멀고 험난한 8승 고지

6번 등판 5차례 QS 불구 승리 못 챙겨

KIA, 연장 승부서 또 LG에 3-4역전패



소사의 8승이 험난하다. KIA 소사가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6과3분의1이닝 3실점(2자책)을 기록하며 선발 임무를 완수했지만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다.

지난 8월5일 7승을 거둔 이후 6번의 등판에서 5차례 릴리프타임을 기록했지만 8승 고지를 눈앞에 두고 다시 또 고개를 숙였다. 17일 SK와의 원정에서 6과3분의2이닝 등

안 5실점을 기록했던 경기를 제외하고 소사의 5경기 방어율은 2.81. 하지만 소사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던 32이닝 동안 KIA 타자들이 만든 점수는 7점에 불과하다.

9일에는 모처럼 타선이 초반 3점을 뽑아줬지만 연속 안타로 자초한 위기에서 수비 지원이 따르지 않았다.

2회초 1사에서 KIA가 3점을 만들었다. LG 유격수 윤진호가 차일목의 타구를 놓

친 뒤 김원섭의 중전안타가 이어지면서 1사 1·2루, 이준호의 타구가 좌측선상을 타고 흘렀고 좌익수 정의운이 공을 더듬는 사이 주자들이 모두 홈을 밟았다. 홍재호의 적시타까지 더해 KIA가 2회 3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3회 소사가 1사에서 연속안타를 맞으며 흔들렸다. 이진영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투 아웃을 만들었지만 정성훈과 이병규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3-1이 됐다. 이어진 1사 만루에서 1루수 조영훈의 시즌 10번째 실책이 나오면서 3-2까지 점수가 좁혀졌다.

이후 양팀의 추가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12회초 1사에서 KIA가 3점을 만들었다. LG 유격수 윤진호가 차일목의 타구를 놓

1사에서 중전안타로 출루한 LG 투타자 박용택이 도루로 2루를 밟았다. 김용의 연속 안타로 1사 1·3루, 소사가 진해수에게 마운드를 넘겨줬지만 이진영의 2루수 앞 땅볼 때 3루주자 박용택이 홈을 밟으면서 승부가 3-3 원점으로 돌아갔다. 소사의 8승도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7월 4연승 행진 속에 7승 고지를 밟았던 소사는 죽음의 7연전의 첫 경기였던 4일 롯데전에 이어 9일 다시 출격해 승리를 노렸지만 KIA 타선의 빈타에 헛심만 쓰고 말았다.

KIA는 10회 연장 접전 끝에 LG에 3-4 역전패를 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즈기 호남고교 야구

내일부터 함평구장서 열려

제1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고등학교 야구대회가 열린다.

KIA 타이거즈가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함평 KIA 전용 연습구장에서 호남지역 고등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야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올 시즌 대륙령기 우승팀 진흥고를 비롯해 동성고, 광주일고, 화순고, 순천 효천고, 군산상고, 전주고 등 7개팀이 참가한다.

7개팀은 리그전으로 조별 순위를 가린 뒤 토너먼트 방식으로 준결승과 결승전을 치른다. 우승팀과 2, 3위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메달이 주어지며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참가팀에게는 160만원 상당의 야구장비가 증정된다.

한편 KIA는 2003년 초등학교 야구대회, 2006년 중학교 야구대회에 이어 고교야구대회를 신설하면서 유망주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상금 3억

유소연 한화금융 골프 우승

지난해 US여자오픈을 제패한 '메이저 퀸' 유소연(22·한화)이 올해 처음 출전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유소연은 9일 충남 태안의 골든베이 골프장(파72·6564야드)에서 열린 한화금융 골프(우승 상금 3억원)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낚아 4언더파 68타를 적어냈다. 허윤경(22·현대스위스)에 1타 뒤진 2위로 경기를 시작한 유소연은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써내 지난해 6월 롯데 간타타 여자오픈 이후 1년 3개월 만에 국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KLPGA 투어 통산 8번째 우승이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전념하며 제이미파 톨리도 클래식에서 첫 승을 신고한 유소연은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오픈을 앞두고 기세를 올렸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마지막 날 선두를 1타 차까지 추격하다가 별타를 받고 5위에 머문 아쉬움도 깨끗하게 설욕했다.

/연합뉴스



9일 충남 태안 골든베이골프장에서 열린 한화금융클래스 2012 최후라운드에서 유소연이 아이언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건 탁구 단체전 銀

패럴림픽, 광주 선수들 '금 2·은 2·동 1' 역대 최고 성적

김영건(28)이 런던 패럴림픽에서 두 번째 메달을 따냈다.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팀의 김영건이 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엑셀 노스 아레나 탁구경기장에서 열린 2012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체전(클래스 4-5) 결승에서 중국에 1-3으로 저 은메달을 획득했다.

개인전 금메달로 베이징 패럴림픽 무관의 설움을 날린 김영건은 기세를 몰아 2004년 아테네 대회 2관왕 영광 재현에 나섰다. 이번 대회 2관왕 영광 재현에 나섰다. 이번 대회 2관왕 영광 재현에 나섰다.

광주출신의 김정길(26)도 단체전에서 팀 동료인 김영건과 손발을 맞추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단식 4게임과 복식 1게임을 치러 3게임을 먼저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결승, 김영건은 0-1로 뒤진 상황에서 두 번째 선수가 나섰다. 상대는 개인전 결승에서 만났던 장안.

김영건은 이번에도 3-0으로 승리를 거두며 두 번째 게임을 가져왔다. 하지만 3번째 게임에 연달아 나선 김영건이 차오닝닝에 0-3으로 패했다.

정은창과 장안의 대결이 벌어진 4번째 게임도 중국이 이기면서 김영건의 2관왕은 무산됐다.

한편 지난 런던 올림픽에 이어 이번 패럴림픽에서도 김영건과 김란속(양궁 여자 단체전)이 대회 정상에 오르는 등 광주선수들의 선전이 눈부셨다.

탁구 6명(광주광역시청소속 코치1, 선수 5)과 양궁 3명(광주장애인양궁협회 소속) 등 총 9명의 선수와 코치는 금 2, 은 2, 동 1 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시는 오는 26일 광주의 스포츠 위상을 높인 런던 패럴림픽 참가선수의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장애인탁구의 스타 문성혜(35·오른쪽)와 중국 장애인 탁구의 차오닝닝(26)이 8일(현지시각) 엑셀 노스 아레나에서 경기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핑퐁사랑 “우리 결혼해요”

문성혜·차오닝닝 열애 밝혀

패럴림픽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의 문성혜(34)와 중국 탁구 대표팀의 차오닝닝(25)이 열애 사실을 밝혔다.

두 선수가 처음 만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06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문성혜가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고 차오닝닝이 반했다고 한다.

문성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차오닝닝이 2007년 슬로바키아 오픈 탁구대회 파티장에서 문성혜를 찾아가 “아시안게임 때 멀리서 응원했다”고 밝히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친구로 인연을 이어 오다 2011년 중국 전지훈련에 간 문성혜가 차오닝닝과 만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차오닝닝은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문성혜가 중국어를 배워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문성혜는 이미 차오닝닝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렸고 차오닝닝은 이번 패럴림픽 대회가 끝나면 문성혜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계획이다. 두 선수는 이번 대회를 마친 뒤에 결혼할 예정이다. 문성혜가 열애 사실을 밝힌 8일 문성혜와 차오닝닝이 출전하는 경기가 모두 열렸다.

성별이 달라 맞대결을 펼칠 일은 없었지만 차오닝닝은 남자 탁구 단체전(클래스 4-5) 결승에서 한국을 꺾고 금메달을 땀 문성혜는 여자 탁구 단체전 3-4위전에서 세르비아를 누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성혜가 3-4위전을 치를 때 차오닝닝은 문성혜의 뒤쪽 관중석에서 뜨거운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문성혜는 “중국에 차오닝닝을 만나러 갔을 때 여왕처럼 잘 해주면서 좋은 감정이 조금씩 생겼다”며 “어머니가 너를 좋아하니까”며 웃음지었다.

보치아·수영 금 2 추가... 한국 12위

대한민국 패럴림픽 대표팀은 대회 10일째인 8일(현지시각) 보치아와 수영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해 종합 12위에 올랐다.

하루 전인 7일보다 4계단 올라 대회 출전부터 목표포 했던 종합 순위 13위 전망을 밝혔다.

패럴림픽 효자 종목인 보치아에서는 한국 선수들끼리 개인 BC3 종목 결승전에서 맞붙어 최예진이 정호원을 4-3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남·녀 성별 구분없이 혼성으로 치러지는 보치아 BC3 종목에서 여자 선수가 패럴림픽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호원은 은메달을 추가했다. 또 정소영은 보치아 혼성 개인 BC2 3-4위전에서 중국의 종가이를 5-1로 이기고 3위를 차지했다.

수영에서는 민병언이 금메달을 따냈다. 민병언은 수영 남자 배영(S3) 결승에서 42초5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본인이 보유한 세계기록(42초21)에 0.3초 부족했지만 2위를 차지한 드미트로 비노라데츠와는 무려 3초75나 간격을 벌렸다.

남·녀 탁구 단체전에서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김영건, 정은창, 김정길, 최일상 등으로 구성된 탁구 남자 대표팀은 남자 단체전(클래스 4-5) 결승에서 중국에 1-3(0-3 3-0 0-3 1-3)으로 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탁구 여자 단체전(클래스 4-5) 3-4위전에서는 정지남, 정영아, 문성혜 조가 세르비아를 3-1(3-1 3-1 3-1)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